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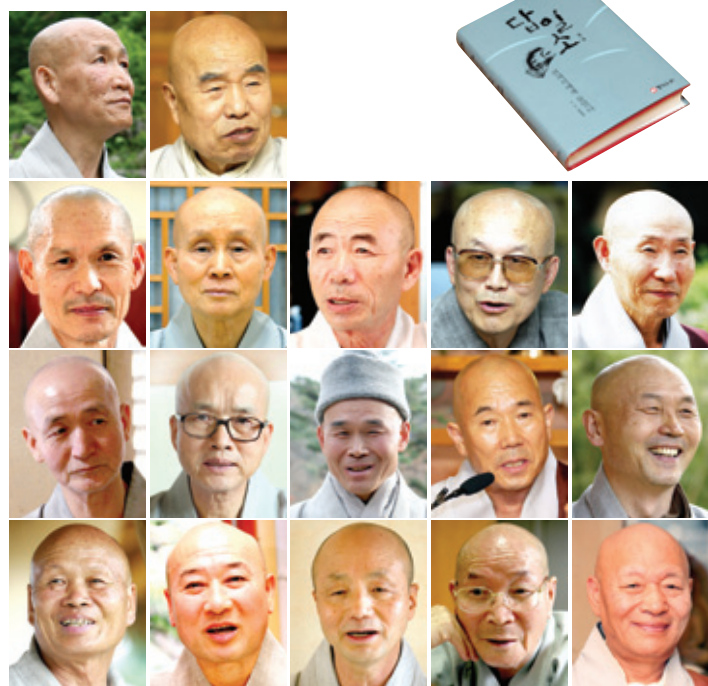
17명 선승이 현대인에게 들려주는 ‘喝’

〈할〉

선가의 살림살이를 들추다 문운정의 ‘답일소’

“인생이 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리 길지 않아요. 우리는 이 뚝뚝이 가지고 천 년 만 년 살 것처럼 꾸미고 치장하고 입히고 좋은 것만 먹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든 간에 다음에 잘하면 되고, 다음에 사과하면 된다며 행동과 말을 함부로 합니다. 그러나 그런 기회는 만나기 어려운 경우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공부할 시간도 많지 않아요.”(통도사 선덕항과 스님, 본문 109쪽)

“마음의 모양이 있나, 무게가 있나? 그렇지만 사람들은 특하면 ‘마음이 무겁다, 괴롭다’고 합니다. 실체가 없는 것이 마음인데, 별이별 감정을 느끼면서, 과거와 미래의 일로 인연해서 항상 얽매어 있어. 얽매임을 끊으려 하지만 마음은 본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끊을 것이 없지요. 우리들의 마음은 생하기도 않고 멸하기도 않고 다만 망상이 일으킨 것에 지나지 않음을 알아채는 것이 공부인데, 이것을 모르니 괴로운 것이지요.”(축서사 기후 스님, 본문 127쪽)



그동안 불교 관련 에세이집, 선사들의 일화집 등을 출간해 온 저자 문운정은 최근 17명의 선승들을 한 자리에 모은 <답일소>를 출간했다. 저자는 부처님의 생애를 담은 선승들을 일일이 만나 묻고 답한 인터뷰집을 통해, 팽팽한 긴장이 숨을 멎게



할 듯한 선방의 고요한 떨림을 담아냈다. 저자는 “언제부터인가 선승들을 한 자리에 모시고 싶다는 열망을 지니고 있었지만, 선가의 가풍이 워낙 자신의 살림살이를 잘 드러내지 않아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어떻게 허락을 얻어내 돌 속에 감춰진 푸른 옥을 드러내듯 눈 푸른 선승 17명을 소개하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자신의 수행이 부족하거나 흔들릴 때마다, 활활 타오르는 촛불에 생손가락을 태우는 연비공양을 하며, 자신의 흔들리는 마음까지 태웠다는 주경 스님. 40여 년 동안 깊은 산골에서 서너 평의 토굴을 지어

생식을 하며 혹독한 수행을 했던 대정 스님. 매년 100일 동안 문 밖 출입을 일체 하지 않고 문을 닫아걸고서 폐관정진하는 활안 스님. 6년 동안 한 차례도 산문 밖을 나가지 않고 토굴에서 묵은 정진한 기후 스님. 노동이 곧 수행이요 수행이 곧 노동이라며 선농일치 사상을 실천하는 대허 스님. 화두참선이 어렵다는 고정관념을 깨버리고, ‘참선은 행복으로 가는 비행기 티켓’이라 말하는 대호 스님 등 스님들은 저마다 다른 세계를 지니고 있으며,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수행길 또한 같지 않다. 물질의 풍요 속에서 ‘참 나’를 잃어버리고 사는 현대인들에게 ‘할’을 들려준다.

책은 일반인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수행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해 명쾌하게 혹은 에둘러 담겨 있다. 부와 권력에 집착하고 마음의 상처투성이로 살고 있는 중생들에게 선승의 말씀들은 탁한 시대를 헤쳐 나갈 수 있게 해 주는 믿고 의지할 만한 말이다. 스님들의 수행 이야기는 일상사의 힘들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이야기로 다가온다. 이은정 기자

답일소 | 문운정 지음 | 한결을 더 | 1만3000원

윤남진 REVIEW

소크라테스부터 야스퍼스까지...다 알아?



위대한 질문 | 레제크 코와코프스키 | 열린책들

무런 배움이 없이 더 나은 질문을 던지는 일이 수월하진 않다. 때문에 지식(배움을 통한 앎)이 꼭 필요하다. 그렇다면 ‘질문하는 법’ 그 자체를 배우는 것이 지름길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 ‘질문하는 법’을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위대한 질문>은 바로 그런 종류의 배움의 방법에 어떤 힌트를 제공하는 책이다. 저자도 서문에서 “이 책은 철학교과서나 백과사전, 사전 같은 용도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위대한 철학자들 각자의 사유 속에 어김없이 등장하는 한 가지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방식으로 기술됐다”고 말한다. 소크라테스부터 야스퍼스에 이르기까지

배움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가? 우선 배우고자 하는 바가 있어야 한다. 즉, 스스로 의문심 또는 질문이 있어야 한다. 아

저지르는가? (소크라테스) ‘세계는 선한가? (토마스 아퀴나스) ‘어째서 아무것도 없지 않고 무언가가 있는가? (라이프니츠) ‘지식은 어떻게 가능한가(칸트)’ 등과 같은 아주 흥미로운 질문들과 그에 대한 각 철학자들의 답, 그 답에 대한 저자의 또 다른 질문들로 가득 차 있다. (그림으로 이해하는 현대사상)은 일종의 현대사상 개념사전과 같은 책이다. 책은 “20세기 철학사는 생각되어지지 않고 있던 것을 어떻게 발견하고, 그것이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를 기술하는 과정에서 성립할 것”이라며 그 공통적인 성립의 계기를 과학에서 찾고 있다. 위대한 사상가들의 위대한 질문이 성립된 배경은 그들이 살았던 세계(아우슈비츠, 미소냉전)와 그들이 축적할 수 있었던 지식(현대과학)의 수준과 동떨어지지 않는다. 책은 20세기 사상을 과학에 대



그림으로 이해하는 현대사상 | 발리 뒤 | 개마고원

누구나 한 번쯤 들어 봤을 위대한 서양철학자들의 사상 낯설고 애매모호함 깨트리기

한 대응방식에 따라 ‘철학의 과학화’ ‘과학의 철학화’ ‘반과학’의 흐름으로 나눈다.

설명은 각각의 철학자들이 구성한 개념어에 대한 해설 방식이다. 예를 들어 이마주(베르그송), 한계상황(아스퍼스), 실존(샤르트르), 프로토크롬 명제(카르납), 언어게임(비트겐슈타인), 패러다임(쿤), 소외(마르크스), 도구적 이성(호르크하이머), 의사소통적 합리성(하버마스), 트라우마(프로이트), 거울보개 단계(라캉) 등 자주 듣고 어렵게 이해하고 있지만, 알쏭달쏭해 감이 잡히지 않는 개념어들을 편하게 만날 수 있게 그림과 함께 설명한다. 독자들은 한 손에 잘 잡히는 문고판인 이 책을 통해 러셀의 <세계철학사>와 같은 백과사전적 저술이나 각각의 철학자가 남긴 저명한 고전으로 나아가는 용기를 얻게 되리라 확신한다.

윤남진 | 종교자유정책연구원 공동연구위원장

붓다를 만나 내 인생 당당해졌다

이중석의 ‘내 인생의 멘토 붓다’



20세기 가장 위대한 역사 학자로 칭송받는 아놀드 토인비는 “동양의 종교가 서양에 알려진 것이 금세기 가장 큰 사건”이라 말했다. 또한 “신을 믿는다는 것은 유치한 미신”이라 줄곧 말했던 아인슈타인은 “불교는 특정한 신의 존재를 초월하며 독단과 신학체계를 회피한다. 불교는 자연과 인간의 영혼을 함께 아우른다”고 표현했다. 그리고 “현대의 과학적 요구에 상응하는 종교는 불교”라고 답했다. 이처럼 세계적인 석학들은 한결 같이 “불교는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행복한 세상이 열리게 한다”고 역설한다. 1600년 전 우리나라에 불교가 들어온 이래 불교는 우리 전통문화의 중요한 주춧돌 역할을 하게 됐다. 고려대장경을 비롯해, 석굴암, 불국사, 고려불화 등 세계가 인정하는 훌륭한 불교문화들은 그 존재만으로도 우리를 자랑스럽게 했다. 그럼에도 불교는 일반인들에게 아직은 어렵고 어색한 존재로 인식된다. 불교총지중 중앙교육원 이중석 원장은 불교를 제대로 알리기 위해 불교를 창시한 붓다의 일대기를 조명했다. 이중석 원장은 “일반인이 좀 더 쉽게 불교에 대해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책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저자는 “붓다를 만남으로써 모든 책임을 나 자신에게 돌리는 당당하고 의연한 생활태도를 지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스스로의 노력 여하에 따라 사람이 달라질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지니게 됐다”며 “붓다는 내 인생의 멘토로서 내가 삶에 지치고 삶의 진정한 방향성을 상실했을 때, 힘이 돼주고 삶의 목표를 자각하게 해줬다”고 밝혔다.

저자는 붓다를 우리의 인생을 바르게 이끌어주는 멘토라는 점에 초점을 맞췄다. 책에는 붓다가 어떻게 삶을 이끌어가고 가르침을 펼쳤는지 생생하게 그려놓았다. <아함경> <율장> 등을 통해 붓다에 대한 신화적이고 전설적인 부분은 배제하고, 인간 붓다의 모습만을 실감나게 재현했다. 또한 왜 불교가 종교간 갈등을 근본적으로 뿌리 뽑고, 화합과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가르침인지에 대해 다양한 예화와 붓다의 말씀을 통해 체계적으로 밝혀놓고 있다. 제1장에는 붓다의 가르침을 제2장에는 붓다의 생애 앞서 비종교학적인 측면에서 당시 인도 사상계를 조명했다.

모든 존재에는 불성(佛性)이 있다. 수행은 모든 존재가 ‘이미 깨달은 붓다’임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붓다는 이 세상 만물은 서로 의지하고 화합해 생성되고 소멸된다는 연기 법칙을 일깨워주셨다. 책에는 우리와 동떨어진 붓다가 아니라 우리 삶과 함께하는 붓다를 통해 삶의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메시지들을 전하고 있다. 이은정 기자

내 인생의 멘토 붓다 | 이중석 지음 | 불광출판사 | 1만8000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19~25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기도	법륜	정토
2	스님의 주례사	법륜	휴
3	선방일기	지허	불광출판사
4	정성 성이 부처입니다	우룡	효림
5	건널 길이 어디 있으랴	대행	한마음
6	기도하는 즐거움	보경	불교시대사
7	노자 도덕경, 그 선의 향기	감산	정우서적
8	소설 무소유	정찬주	열림원
9	부처님께 다가가는 방법	목경찬	조계출판사
10	행복, 비움으로 얻는가 채움으로 얻는가	미산 외	운주사

※ 불서총편 운주사 제공

www.buddhabook.co.kr

운주사 02)3672-7181~5

天氣福

화제의 신간 백초스님의 다라니방편부 신묘부주밀법총해

귀신이 붙었든, 조상이 탈이 났든, 인간에게 그 어떤 고통을 안겨주는 부정하고 사악한 기운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속히 제거해야만 뜻대로 생활할 수가 있고, 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에 누구나 그러하기를 원한다. 하지만 요즘 귀신이나 잡귀들은 예전의 방식대로 부적이나 비방법을 쓰면 잘 내쳐지지가 않는다. 귀신도 피가 많아지고 약식빨라져 간악해졌기 때문에 좀 더 강력한 신력과 벽사 방편법으로 다루어야만 확실하게 퇴치할 수 있다.

일반적인 부적책이 아닙니다!

“옛날부터 구전으로만 전해지던 남이 알려주지 않는 비법이라는 방편법을, 방편물과 방편을 하는 법들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著者 白超 백초스님

특수양장본 / 탈로이드판 257×364 / 536쪽 / 정가 380,000원

금강주술방편연구회

02)6015-6332/010-2002-6332

입금계좌 (예금주: 임현주)

농협 023-02-500940

신한 010-6413-4443

이 책에 소개된 밀법총해는 티베트밀교와 일본·중국·한국의 불교와 무교에서 비밀리 사용하는 진언과 부적을 총 집결하여 만든 방편부의 총서이다. 구전으로만 전해지던 양법과 벽사법과 퇴마법 등을 최대한 수집해서 기록 하였고, 또 일반 부적으로만 치방이 어려웠던 부분을 강력한 神力을 합입시켜 소원하는 일들을 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방법론까지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